

◇흉부관통상에 대한 임상적 고찰

이석열, 이승진, 박영우, 양성린, 정윤섭, 이만복, 고정관, 이철세, 염 옥,
이길노

순천향대학병원 흉부외과학교실

배경 및 목적 : _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시민폭력성의 증가에 따라 흉부관통상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흉부관통상은 흉곽내의 심장, 폐 등 주요장기의 위치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초래할수있어 신속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요구된다. 저자들은 1985년 1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던 흉부관통상 103예를 치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방법 : _ 1985년 1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순천향대학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던 흉부관통상 103예를 대상으로 발생원인, 손상부위, 치료방법들을 임상적으로 종합 분석하였다.

결과 : _ 흉부관통상 환자들은 20대와 30대가 전체의 60%를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31.3세였다. 또한 남녀비는 4.7:1로 남자에서 훨씬 많았다. 원인별 분류로는 칼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았고 그외 총, 유리, 가위등에 의한 것이었고 관통상의 이유로는 상해에 의한 것이 제일 많았다. 수상후 3시간 이내에 내원한 환자는 83례로 81%였다. 흉부관통상의 부위로는 좌측흉부 전면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치료는 103예중 흉강삽관술로만 치료된예가 54예, 개흉술이 49례, 개흉술시 개복술을 동반한예가 6례였다. 합병증으로는 창상감염이 6례, 농흉이 1례였고 사망은 2예로서 사인은 저혈성쇼크, 범혈관내응고, 패혈증이었다.

결론 : _ 흉부관통상은 신속한 치료가 요구되며 흉곽내 주요장기의 손상으로 인한 개흉술이 필요 할수도 있다. 흉강삽관술후 배출되는 혈액량을 주의깊게 관찰후 개흉술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임저자:이석열(순천향대학병원 흉부외과) 발표자:이석열(순천향대학병원 흉부외과)